

범죄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프로파일러의 세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프로파일러는 과학수사 전문가와 함께 찾아낸 각종 증거들을 통해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 등 범죄자의 특징을 분석해내어 범죄자를 찾거나 예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프로파일러는 대부분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직업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2년 연방수사국(FBI)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공식적으로 활용되었고, 1983년에는 국립형악범죄분석센터(NCAVC)가 설립되어 전국 경찰로부터 범죄 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FSS(Forensic Science Service)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범죄 정보만을 별도로 수집·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하면서부터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국내 프로파일러 1호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명의 프로파일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프로파일러는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상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급파됩니다. 수사 요청을 받은 프로파일러는 사건 현장에 출동해 범죄자가 어떻게 범행을 준비했고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일련의 범죄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용의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토대로 은신처나 도주 경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가 검거된 후에는 심리적 약점을 공략해 자백을 받아내고 여죄를 밝히는 심문에도 참여하며, 심문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일도 합니다.

프로파일러의 현재와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경기 침체와 양극화 등 사회 불안이 심해질수록 강력 범죄와 증거를 찾기 힘든 지능범죄가 늘어나므로 프로파일러의 범죄심리 분석 업무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연쇄 강력범죄나 지방청 2곳 이상이 연계된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 ‘긴급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프로파일러를 현장에 출동시켜 수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죄가 많아지면서 채용 규모는 서서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파일러 외에도 비슷한 직업군인 범죄심리학자, 범죄심리연구원, 피해자 전문 상담사, 심리학 교수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출처: 워크넷이색직업정보

프로파일러가 되는 길

프로파일러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적인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데다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전문화하여 양성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직업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진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관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요원을 거쳐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6개월간의 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일선 경찰서로 배치되는데, 이때 '수사경과제'를 신청하면 강력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과학수사팀, 수사지원팀, 유치관리팀 중 과학수사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수사요원으로 경력을 쌓은 후 '심리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범죄분석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격하면 6개월 교육 이후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범죄분석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범죄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마주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는 프로파일러들의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프로파일러에게 필요한 자질과 더불어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들어봅시다.

“프로파일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감입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것을 풀어가려는 끈기가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리 끈기를 강조해도 누구나 포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갈래에 섰을 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정의감이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찾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이 프로파일러에게 중요합니다.”

- 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프로파일러 고OO 님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 범죄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심리학·사회학 전공자라면 프로파일러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파일러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 등 심리학과 전공자들이 경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발생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 등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학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 분석관 정OO 님

“프로파일러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다양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정서적 동요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최OO 님

